

# '찾아가고 싶은 박물관,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지역 콘텐츠 확장·박물관 접근성 개선 등 3대 중점과제 설정

국립전주박물관은 '찾아가고 싶은 박물관,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이라는 표어 아래 3대 중점 과제를 설정한 뒤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박물관은 올해 주요업무계획과 함께 △지역 문화 전시·콘텐츠 확장 △사예 문화 브랜드 강화 △박물관 접근성 개선 및 행사 활성화 등의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박물관 측은 국제 문화 행사 준비를 위한 연계 콘텐츠 사업과 지역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전시 콘텐츠를 기획 중이다.

내년 8월께 서울에서 진행되는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YD·World Youth Day)'와 연계된 특별전 준비를 위한 학술조사와 토론회가 준비되었다.



국립전주박물관 전경.

또 전북도 유형문화유산인 '나한상'을 만나 볼 수 있는 특별전 '전주 서고사 나한상' 전, 국보급 유물들이 전시될 예정인 국보순회전 '보두가 함께하는 180일의 여정' 등도 기획 예정인 상태다.

박물관의 특화 브랜드인 사예를 더욱 대중화하는 전시도 예정되었다.

안중근 의사의 유목 50여점을 볼 수 있는 특별전 '대한민국 안중근 씨다', 조선왕조실록 등 전주가 지켜온 기록문화유산을 볼 수 있는

'기록의 보고를 언다' 등을 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박물관이라는 메시지를 구현하기 위해 점자책 발간, 휴대전화 기반 스마트 전시 안내 시스템 등을 정비하고 전주 시니어클럽과 연계한 시니어 도슨트 제도를 운영해 세대 간 소통 등도 추진한다.

박물관이 추진 중인 '복합문화관'도 착공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234억원이 투입된 복합문

화관은 어린이 박물관, 디지털 체험관, 지류 보존실 등으로 구성된 미래형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박경도 박물관장은 "올해는 전주박물관이 지역사회와 더욱 깊이 호흡하며 미래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이 언제나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열린 박물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 부안 상감 도자작품 대학생 공모전 개최

부안군 청자박물관, 7월 서류·작품 접수

부안군 청자박물관이 고려 상감청자의 전통을 잇고, 젊은 도예 인재들의 창의적인 작품을 발굴하기 위한 제2회 부안 상감 도자작품 대학생 공모전을 개최한다.

천년의 시간을 품은 부안 상감청자는 우리나라 전통 도자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부안군 청자박물관은 이러한 전통 위에 대학생 작가들의 참신한 시각과 감각을 더해 오늘의 일상 속에서 쓰일 수 있는 새로운 도자 작품을 발굴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전은 부안군과 부안청자박물관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며 국내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상감기법을 응용한 실용적인 도자기 작품으로 단품 또는 세트 구성 작품 모두 출품할 수 있다.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쓰임새가 조화를 이루는 참신한 작품이 기대된다.

공모전 서류 접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3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이며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작품 접수가 이뤄진다.

작품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22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44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총상금은 6400만원이고 대상 수상자에게는 2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제는 지난해 열린 제1회 공모전보다 확대된 규모로 대학생 작가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창작 의욕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군은 공모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는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6월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공모전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젊은 도예 인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완주 13개 읍·면 함께하는 전통 타악 페스티벌

완주문화재단, '완주 고고장구&난타 페스티벌' 3월 1일 개최

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오는 3월 1일 완주군 둔산공원 일원에서 13개 읍·면이 2026 완주 고고장구&난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한국 고유의 타악기인 고고장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동체형 전통문화 행사로, 완주 13개 읍·면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문화 축제다. 세대 통합형 민속놀이와 체험,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중심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주체의 참여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완주 관내 삼례읍, 봉동읍, 용진읍, 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고산면, 화산면, 완주읍으로 구성된 159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고고장구&난타 경연'은 완주군민과 협동조합 만경강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생활문화 화합의 무대로, 축제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3월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행사기간 동안 완주군어린이집연합회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먹거리 부스, 전통 체험부스, 다양한 체험 및 플라마켓이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 공연 △고고장구 예선전 △풍류학교 공연 △고고장구·난타 통합 공연 △시상식 및 폐회식 등이 마련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 김제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이달의 소장품' 전시

김제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이 이달의 소장품 전시로 '땅을 고르고 씨앗을 대다, 팔개'를 주제로 한 전시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오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농경사회에서 토양을 정리하고 파종을 돕던 전통 농기구 '팔개'를 통해 옛 농경사회의 노동 방식과 지혜를 조명한다.

팔개는 흙덩이를 부수고 고르게 하거나 씨를 뿌린 뒤 흙을 덮는 데 사용된 도구로, 경우에 따라 위에 돌을 싣거나 사람이 올라타 끌기도

했다. 특별히 정해진 형태가 없어 지역과 환경에 따라 모습이 조금씩 달랐으며, 대체로 나무를 연결해 넓은 판처럼 만들어 사용했다.

이번 전시는 기계화 이전 농업 현장에서 사람의 힘과 도구가 어떻게 결합했는지를 보여주며, 땅을 일구는 노동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제공한다.

정성주 시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선조들의 근면함과 생활의 지혜를 느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부안 신춘음악회' 개최... 트로트·클래식 무대 선보인다

부안군은 오는 3월 13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문희옥과 미스터트롯 류지광, 풍류대장 임재현 그리고 클라무팔하모니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부안 신춘음악회'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클라무팔하모니오케스트라(지휘 유수영) 연주를 중심으로 '역주행 아이핀' 문희옥을 비롯해 '미스터 트롯'이 발굴한 '21세기 배호'로 불리는 류지광, '풍류대장' 임재현이 출연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연주를 맡은 사단법인 클라무팔하모니오케스트라는 전북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민간 오케스트라로, 클래식 전공자들에게 안정적인 연주 기회를 제공하고 부안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것이다. 현재 연간 30~40회 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며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공연 티켓은 오는 3월 5일 오전 9시부터 티켓링크와 부안예술회관 방문을 통해 예매 가능하며, 전석 5,000원으로 관람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해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